현대불교
2020년 4월 15일 수요일 제 1289 호

COVID 19
셀프힐링

고통의 숲에서 치유의 숲으로

아픈 몸으로 누워 있던 병실 문이 열렸다.

스승으로 모시던 노선사였다. 산문 출입이 잦지 않으시던 스승의 발걸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다.

"그대가 아프면 그대와의 인연이 다 아프다. 그것은 우리가 이 생을 함께 가기 때문이다."

놓고 가신 선사의 말씀처럼 지금 이 생을 함께 가는 우리의 인연터가 아프다. 병든 이들도 병들지 않은 이들도 고통의 숲에 갇혀 숨막혀 한다.

이럴 때 꽃인 듯 환하게 누구의 희망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.

치유의 향기 가득한 마음의 꽃이 되어 한 세상 아픔과 기쁨을 오롯이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.

아픔도, 절망도 이겨낸 어느날, 우리 사는 세상만큼 넓고 큰 꽃밭으로 한데 어우러져 크게 웃어보는 것은 어떨까.

글=황청원 (시인) / 사진=박재완 기자

〈셀프힐링 관련 특집 2 · 3면〉

*이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아 원고 조차 쓸 수 없는 시인은 병상에 누운 채 핸드폰으로 쓴 이 글을 고난에 지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보내왔습니다.